

현대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시간의 감각과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and the Sense of Time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

Author 장정제 Jang, Jung-Jae / 정희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and the sense of time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 And to classify the system and elements of Zeitlichkeit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al design. The concept of time can be divided into two meaningful perceptions. Those are the concept of realistic time and the concept of subjective time. These tendencies of theories of architectural space has borrowed from innovations in the sciences, and the whole idea of space-time within art and architecture. Those notions developed through the researches of Bauhaus, Postmodernism, Landscape architecture, Digital Architecture and so forth.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oncepts of tim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have the various languages which there was not in the past. At the point of the transforma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The concepts of space-time are classified into those from the orders of form and space, from dynamic of the image in the dissolution of architectural form, from traces and steps of movement in dynamic form, and from the systems of commands in the digital softwares. As such, Zeitlichkeit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means that the architecture moves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sensual design elements into Art of life through events and contents which human can experience and recognize. These theories and researches reveal that contemporary architectural movements insert the meaningful stories into architectural space through programs and diagrams.

Keywords 기억, 감각, 경험, 투명성, 시간성
Memory, Sense, Transparency, Zeitlichkei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간은 공간의 확장을 통하여 그리고 공간의 경계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경험적 의식이자 선형적 의식이다. 시간은 건축이 만드는 조형적 형태, 기능 또는 행위와 요구, 특정한 경험과 감각, 기억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얻는다. 시간은 경험자에게 불확정적 기억과 내용을 생산한다. 그리고 기억의 순서와 깊이, 경험적 시간의 폭을 결정한다. 시간은 공간의 연속성과 관계를 구분하고 사건에 의하여 공간의 질서와 경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공간과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은 경험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존재하는지와 이전과 이후의 관계도 결정한다. 시간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을 질서 있게 하고 층

위를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대 건축 공간에서 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경험되는가를 연구하여 구체적인 표현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간에 있어서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러한 시간의 경험과 건축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건축적으로 시간성을 표현하는 요소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건축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을 제시하고 실제 시간의 개념이 현대 건축에서 주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대 건축 공간에서는 행위와 존재적 위치를 얻기 위하여 경험자가 갖는 시간의 감각이 예술과 철학의 분야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는가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상대적 시간성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근대적 형태적 질서와 변형으로 얻어지는 시간성과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4장에서는 현대 건축의 시간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성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 체계와 요소는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5장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고자 한다.

2. 시간과 시간성의 개념 형성과 발전

시간성의 개념은 공간에서 시공간으로 전이되는 건축적인 발전과 맞물려 예술에서의 시간성 표현 방식 그리고 철학적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인 표현 요소, 경험을 통하여 이해되는 공간의 개념으로 집약된다. 즉, <형태적 질서와 변형을 통한 시간성>과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으로 표현된다.

2.1. 시간의 개념과 현대 건축공간의 시간 감각

(1) 시간의 실재적 개념과 관념적 개념

시간과 공간은 관념을 통해 설정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실체를 가진 것처럼 길다, 크다, 짧다, 나뉜다, 분리하다, 관입되다와 같이 서술된다.¹⁾ 시간(時間)도 공간(空間)도 모두 간격으로서의 간(間)을 사용한다. 어떠한 간격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시간의 실재론적 관점은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행성의 주기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자연과 물리적 실체, 자연의 근원적 움직임, 천문학적 궤적 등이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시간이다. 시간의 관념론적 관점은 인간의 사고와 표현으로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을 인식하고 공간의 경험을 구체화하며 방향을 얻는다.²⁾

건축적으로 공간과 시간은 현상적 경험에 의하여 추정되고 가늠된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체험을 구체적 관념으로 전환한다. 결국 공간과 시간은 간격을 만들고 채우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기억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적 경험은 시공간적 경험이 된다. 건축의 시간성은 대상의 시각적 경험으로도 가능하고 공간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통해 체험된다.

(2) 현대 건축공간에서 시간 감각의 주목

공간의 연속적 전개와 상호관입, 충돌과 변화, 동선에 따른 움직임과 시선, 형태가 가진 시간적 흐름과 운동감, 운동의 흔적을 따라 생성되는 기하학적 변이가 건축에서 시간 감각을 생산한다. 기디온 S. Giedion은 형태, 공간, 시간의 건축 디자인의 테마가 시간이라는 축을 통해 변화해왔다고 본다. 건축 공간은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발전에 의하여 기능은 물론 행위를 위한 배경으로 요구되었다. 이후 형태와 공간은 더 복잡한 사건을 담고 행위들을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행위가 만드는 사건들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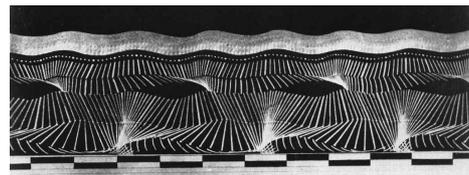
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장소는 이벤트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 시간은 인간, 행위, 사건, 기억, 장소의 중요한 축이 된다.³⁾ 공간은 이벤트와 경험을 담고 그것을 분명하기 표현하기 위해 감각적 표현을 요구한다. 최근에 와서 공간과 장소의 구축은 감각적인 재료와 표현에 주목한다. 색채와 질감, 시각적인 변화와 이질성, 투명성과 역동성이 감각적 표현의 도구가 되었다.⁴⁾ 현대 건축에서 시간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경험하는 존재의 확실성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2.2. 시간의 표현과 개념의 정립 과정⁵⁾

(1) 예술에서의 시간의 정립과 표현

예술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은 레싱 G. Lessing이 라오콘 Laocoon에서 문학이 시간적이고 계시적인데 반하여 시각예술은 필수적으로 공간적이며 동시적이라 함으로 시작된다.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에 의한 예술의 분류를 보자면, 건축은 그 재료적 특성에 의하여 형태예술이다. 이후 예술은 시간성과 공간성에 의하여 양분되었다. 그러나 시공연속체적 개념이 정립되자 듀이 J. Dewey는 시간과 공간에 의한 예술의 구분을 해체하고 시간과 공간의 연계성에 주목했다.⁶⁾

시간 자체는 움직임과 변화를 인식하고 관념화함으로써 이해된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공간속에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즉 기하학적 형태 혹은 역학계의 위치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⁷⁾



<그림 1> E.J.Marey의 chronophotography

머이브리지 E. Muybridge와 마레 E. J. Marey는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촬영하여

시간의 기원을 찾고 그 변화를 남기고자 했다.⁸⁾ 인체의 운동패턴이 하나하나의 정지 동작으로 멈춰질 수 없고 연속된 동작의 흐름임을 표현했다. 19세기 이후 형성된 시공간개념은 표현주의에 의하여 역동성과 연속성으로 해석되었고 미래파는 속도와 운동을 구체화하였다. 이들

3) Manuel Gausa,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p.203

4) 박형섭 외, 건축공간론, 대한건축학회, 2010, pp.314~315

5) 여기에서 시간은 건축 형태와 공간을 통하여 관찰자가 구체적으로 감각하는 시간의 감각을 일컫는다, 하이데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기된 시간의 감각은 시간성 Zeitlichkeit이며 현존재를 구성하는 분명한 내적 인식이다.

6)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Vol.39 No.9, 1995, p.46

7) 김원갑, 건축과 시간속의 운동, 시공문화사, 2009, p.18

8) 변대중, 현대 건축의 메타모포시스적 해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0 No.1, 2011, p.17

1) 김성우, 동서양 건축에서의 공간과 시간, 건축역사연구 제13권 3호, 2004, pp.98~99

2) 문정필 외, 현대건축 조형에 나타난 동시성의 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논문집 10월 3호, 2008, p.49

은 다중시점과 동시성, 시간을 통한 운동의 궤적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서 시공간 개념은 공간의 유동성, 연속성, 투명성, 동시성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⁹⁾

(2) 시간의 철학적 개념과 표현 : 운동 그리고 변화

기원전. 제노 Zeno는 시간은 움직이고 흐르고 운동하는 대상으로 변화하며 변화는 시간이라는 관념을 제시한다. 플라톤은 티마에우스 Timaeus에서 시간이란 영원의 움직이는 이미지로 정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간은 운동, 움직여진 사물, 혹은 운동에 속하는 어떠한 것으로 정의된다. 시간은 변화없이 존재할 수 없고 시간은 단위와 길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플로티누스는 시간이란 운동에 딸린 지속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은 가능태 dynamis인 질료가 최종 목표로서 완성태이자 현실태 energeia인 형상 eidos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 혹은 형상을 규정하는 모든 물질의 증가와 감소, 팽창과 축소와 같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모두 운동에 해당한다.¹⁰⁾ 칸트에게 시간은 모든 경험에 앞선 감성적 직관의 순수형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베르그송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운동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제공한다.¹¹⁾ 베르그송 Bergson과 후설 Husserl 역시 시간을 의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객관적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 경험적 시간을 구분했다.¹²⁾ 이러한 구분이 보여주듯이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3) 주체의 경험으로서 시간성의 형성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경험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체험의 구조가 된다. 인간은 체험을 통하여 삶을 만들고 삶의 내용은 인간을 규정한다. 경험은 감각을 통하여 지각되고 인식된다. 감각을 통하여 지각된 내용은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지각하는 인간의 존재와 기억을 구축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이해는 존재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존재 Dasein는 시간의 탐구로 연결되며, 존재의 시간성은 유한성, 선입견, 전통, 영향력 있는 역사적식, 시간적 거리들을 통해 생산된다. 사건 안에 시간이 존재한다. 그것은 새로운 시간이 된다.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의 지속적 경과를 통해 확장된다.¹³⁾ 시간은 주체의 실존적 존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성이 된다. 시간성은 시각(時刻)의 결정을 통해 시간이 얻어지지 않는다. 시간은 사건을 통해 규정된다.

3. 건축 공간에서 시간성 표현의 양상

건축, 예술 그리고 철학적 발전에 의하여 시간성의 개념은 형태의 감각으로부터 공간의 체험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공간은 시간성과 결합되어 간다. 형태와 공간의 질서, 질서의 해체, 해체 과정으로서 운동, 운동을 구체화하는 디지털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형태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체험을 통해 시간성은 시각적 깊이, 관찰자의 운동, 행위와 사건, 생명체적 성장으로 나타난다.

3.1. 형태적 질서와 변형을 통한 시간성 표현

(1) 형태와 공간의 질서로부터 얻어지는 시간성

고대 신전과 스톤헨지, 지구라트와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는 특정한 시간과 우주적 공간의 방향성을 실현한다. 그러한 형태와 공간은 특정한 시간을 구조화한 형상이고 윤곽이다. 특정한 방향성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와 시각적 변화와 공간의 특이성이 시간성을 생성한다. 이곳에 특정하게 고착된 성스러운 시간이 존재한다. 즉, 천문학적 시간이자 종교적 시간이다.¹⁴⁾

고딕의 성당은 물리적 구조로부터 관념적 공간으로 변화해가는 시선과 이동의 통로를 갖는다. 성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약속 받은 미래가 가시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것은 3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한 4차원적 시공간이 된다. 그 시간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 관념적 경험의 시간이자 초월을 향한 경험적인 변화를 토대로 한다.

빛과 스테인드글라스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경험자의 관념 속에 초월적 세계를 만든다. 여기에서 빛은 우주적 시간의 상징이고 성서적 시나리오의 길이 된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이 된다. 이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힘은 빛과 명암으로부터 생산된다. 특정한 시간의 내용은 공간의 윤곽과 형태적 내용을 통해 형성된다. 시간은 시각적으로 제시되고 이미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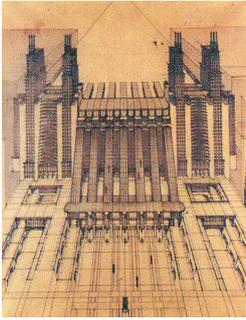
(2) 형태 해체의 이미지로서 역동적 시간성

안토니오 산텔리아 Antonio Sant' Elia의 입방체의 변형과 역동성은 사선과 타원의 탈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러시아 구성주의로 이어진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지각하는 정신적 에너지의 힘을 주장하면서 절대주의의 순수추상을 합리적 조형인식에 도입한다. 이들은 매스를 비틀고 어긋나게 함으로써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이해의 관계를 실험한다.¹⁵⁾ 거꾸로 뒤집힌 원추형의 매스, 사선으로 꺾인 매스, 비스듬히 매달린 형태, 중력법칙에 도전하는 캔틸레버와 돌출된 매스의 조합은 건축 형태와 공간을 운동의 형태로 전환시켜 놓았다.

데스틸의 반 데스부르흐 Theo van Doesburg는 공간

9) 김호연, 큐비즘의 투명성과 시간성 표현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p.33
 10) 이대암, 상계서, p.47
 11) 김원갑, 상계서, pp.56~59
 12) 이대암, 상계서, p.47
 13) 김원갑, 상계서, pp.150~154

14) 문정필 외, 현대건축 조형에 나타난 동시성의 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논문집 10월 3호, 2008, p.48
 15) 김원갑, 상계서, pp.14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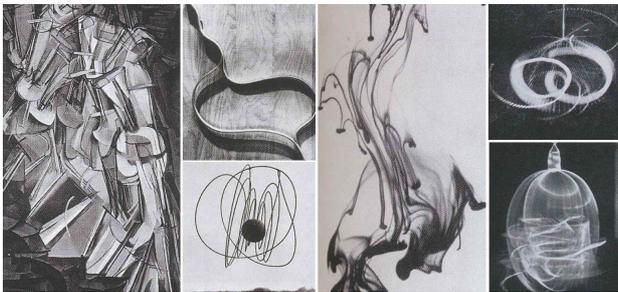
<그림 2> Antonio Sant'Elia의 밀라노 중앙역계획

적 대조와 부조화, 상충과 결합을 통하여 내외부의 이원성을 해체하고 긴장을 유도하는 에너지를 공간에 확산시키고 창조하고자 한다. 또 다양한 색채를 통하여 공간에 유동적 흐름을 주고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과 공간의 요소들이 변화·확장·반복되는 운동감을 주고자 했다.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 역시 투명성을 통해 운동속의 시각

을 표현한다. 바우하우스 건물에서 그로피우스는 시공간 개념을 공간속의 운동, 운동속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넓은 면적의 유리를 통해 투명하게 부유하는 공간으로 시공간을 제시한다. 이후 모홀리나기 Laszlo Moholy Nagy는 매스대신 공간을 통하여 힘의 장을 창조하고 공간이 흐름과 같은 여러 관계들의 무수한 연속체로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3) 역동적 형태 운동의 시간성

질료와 대상의 움직임, 속도, 공간의 힘들, 선의 방향성, 점진적인 밀도의 변화, 진동, 리듬은 기하학적 궤적을 남긴다. 그것은 가상적인 형상이고 윤곽이다. 그러한 윤곽들은 방향성과 힘을 연상시킨다. 그러한 연상의 배후에는 가상적 세계의 실마리, 엔트로피, 불확정성의 원리, 플렉탈 기하학의 궤적, 다수의 밀도와 중첩, 운동감의 역학적 법칙들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상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와 형태의 주축은 불안과 동요,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인 세계의 모습이이며 현재의 균형은 그러한 세계의 평균이고 흔적이며 변화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형태는 운동이고 윤곽이며 방향성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힘으로 이해되었다.



<그림 3> 역동적 형태의 움직임과 궤적의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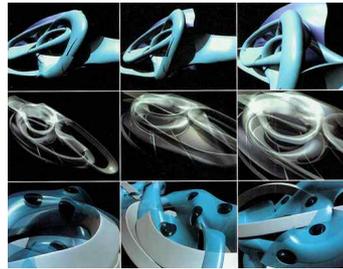
운동은 행위의 예술, 움직임의 예술, 시간의 예술로서 이해된다. 그리고 건축 형태에도 운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현대 건축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단편적인 매스의 구성에서 벗어나 변형된다. 형태의 변형에는 비선형적 질서가 내재한 움직임의 과정이 존재한다. 그 균형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의미를 생성한다. 즉 하나의 기하

학적인 선으로, 윤곽으로, 외부의 경계로 이해된다. 세계를 파악하고 지각하는 방식들의 경계가 된다. 그러한 움직임의 패턴을 추상화한 이미지는 무수한 선들의 자유로운 궤적으로 그려진다. 형태로부터 감각하는 아름다운 경계와 움직임도 선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수렴된 선은 형태와 공간 그리고 그 변형의 운동을 구체화한다.¹⁶⁾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명령어 체계에 의한 시간성

동시대 건축가들은 형태와 공간을 구체화하는데 주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장점은 건축물의 형태를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공간에서 디자인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들은 형태의 볼륨과 표면을 함수적으로 당기거나 자르고 밀고 잇고 늘이고 붙인다. 이러한 조작의 근거는 벡터에 의한 힘과 방향성이다.

즉 운동의 형식을 형태조작의 명령어로 사용하고 적용한다. 즉, 3차원 공간에서의 형태 조작에 의하여 디자인된 3차원적 형태는 특정한 방향성을 얻고 그 방향성을 따라 변화하는 형태와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시간성을 획득한다. 운동의 힘과 방향성은 프로그램의 주요 통제요소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의 가상적 공간에서 시각화한다.



<그림 4> ASYMPTOTE, Guggenheim Virtual Museum, New York, 2002

이러한 디자인 방식은 건축적 실체와 형식에 힘과 벡터 변수를 가함으로써 형태와 공간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 변형의 단계들은 운동과 움직임의 유추를 통하여 시간을 갖는 형태와 공간

의 창조, 조정, 표현이 되며 실제 건축물의 디자인 언어가 된다. 접고 삭제하고 늘이고 이접하고 굽히는 통제 수단으로서 명령체계는 건축 형태와 공간에 변형의 과정과 궤적에 시간성을 부여한다.¹⁷⁾

3.2.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 표현

(1) 시각적 깊이 감각이 생산하는 시간성

공간은 정적인 비어있음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은 또 다른 공간으로 연속되고 관입하며 분절되고 분화된다. 그러한 공간을 가로지르고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관찰자는 시각적 변화를 경험한다. 투시도적 공간 내에서 관찰자는 자신의 위치, 시선의 높이, 방향, 움직임, 시선의 각, 시선축의 변화, 시야의 폭을 지속적으로 재확인

16) 박항섭 외, 상계서, p.334

17) 장정제, 건축 디자인 도구의 발전과 건축언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8 No.6, 2012, p.6

하게 된다. 그 밖에도 공간과 공간의 겹침과 상대적 거리, 크기 등을 통하여 깊이를 만들어 낸다.



<그림 5> Peter Eisenman, Aronoff Center for Design and Art, 1988

연속적인 시간적 시퀀스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시각적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공간의 절삭과 접기, 해체적 형상의 중첩, 다중적 관입은 형태요소를 분절함으로써 시각적 요소를 변화시킨다. 시야각, 시선 축, 시선의 높이, 시선방향, 시각 프레임의 복수화와 같은 시각적 요소의 변화는 하나의 시각적 프레임 안에 다중적인 시점과 동시적 시점을 만들고 시간성을 생산한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의 비결정성과 경계의 해체 역시 새로운 시간성을 만들어 낸다.

재료의 투명성, 반사적 질감의 표면, 비물질적 역시 다의적인 공간의 겹침과 깊이를 생산하고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시간성을 유도한다. 투명성은 재료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건축적 형태와 공간을 재구성한다. 극한적 시각적 공간은 투명성과 경쾌함, 표현의 비물질화를 통하여 이전의 건축물이 가진 한계적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2) 관찰자의 운동에 의해 경험되는 주관적 시간성



<그림 6> Daniel Libeskind, Denver Art Museum Extensi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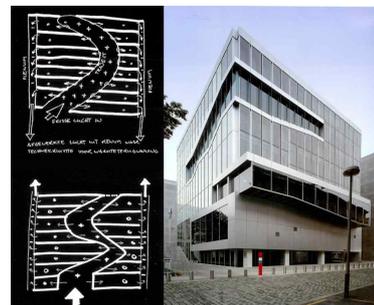
공간에서 운동은 경험자의 신체로부터 생산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마흐의 이론에 접한 예술가들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사차원적 시공간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시간성의 개념은 신체와 공간을 동일시하고 신체확장의 기술을 통해 이동과 움직임 그리고 변화라는 개념을 낳는다.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메스의 역동적 변형, 내외부 공간의 개방, 공간의 역동적 이미지, 시각적 역동성, 건축적 산책로 등에서 시간성이 확인된다.¹⁹⁾ 이러한 움직임

을 통해 시각적 변화는 경험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미지의 변화를 통하여 관념적인 경험의 시퀀스를 생산한다. 경험적 시퀀스는 하나의 연속적 시간을 만들어낸다. 시각의 요소는 동선을 통한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투시도적 공간의 깊이를 통해 재구성된다.

현대 건축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시작된 움직임들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각을 자극한다. 공간속에서 시공간의 개념은 항상 동질적이지 않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질이 변화한다. 따라서 공간은 한정된 비어있음의 경계가 아니라 동적 이미지의 시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분과 전체의 물리적 경계가 해체되고 동시적 단계와 중첩, 상호 소통의 공간으로 혼성화된다.²⁰⁾ 시간은 보는 것으로서의 시간, 몸으로 걷고 행위하고 움직여서 만들어 내는 시간, 의식을 통하여 사건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의 체험은 바로 공간의 체험이 된다. 경험자의 움직임과 감각, 기억, 사건, 육체, 심리, 감정에 근거하는 상대적 주관적 시간으로 나타난다.

(3) 다이어그램·프로그램에 의한 행위와 사건의 통제



<그림 7> Rem Koolhaas., Netherlands Embassy in Berlin, Germany, 2003

들뢰즈의 추상적 기계 혹은 지도로서 잠재성을 현실태로 전환시키고자 의도된 프로그램은 현대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디자인 도구로 사용된다. 다이어그램은 행동패턴의 구조화, 요구 데이터의 수용, 감각적 이미지와 개념적 해석, 형태 생성의 원리로서 작동한다.

다이어그램에 의한 형태와 공간의 생성은 위상학적으로 정보처리와 분석, 공간의 조직, 구조적 형상, 공간적 순환, 공간의 체계를 구체화한다. 동시에 다이어그램을 통해 특정한 질서와 시간적 서열, 전후와 수평·수직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형태가 갖는 시간적 요소들이 결정된다. 다이어그램은 평면적인 영역의 분배가 아니라 행위에 기초한 사건의 연속적인 관계를 규정하므로 형태와 공간 혹은 구조에 연속적인 관계의 시간성을 함께 생성한다.²¹⁾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은 비결정적 공간적 경계를 만들고 형태를 해체하며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재정립한다. 시공간적 질서와 연쇄적인 단계들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형태 조작은 요구 대상의 통제방식에 영향을 받는

18) 유병은, 예술, 건축, 음악 그리고 공간과 시간, 建築 Vol.39 No.9, 1995, p.32

19) 김원갑, 상계서, p.10

20) 김호연, 상계서, 2002, p.33

21) 윤혜경 외, 현대건축의 공간형태 생성으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8 No.4, 2012, p.73

데 비결정적 행위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태도와 비정형적 형태의 변형 가능성, 유연성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생산하는 디자인 방법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위상학적인 공간의 구축과 이미지의 형성, 형태 생성 원리로서 다이어그램은 형태 조작과 변형을 통제한다.²²⁾ 동시에 시간은 투시도의 연속적 전개, 공간의 변화에 따른 단면도의 연속적 전개, 특별한 동선을 제시하며 시간을 암시하는 사건과 형태적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다이어그램은 그러한 통제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형태와 공간에 반영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요소들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은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통하여 시간성이 경험된다.

(4) 메타모포시스²³⁾ : 생명체적 역동성과 이미지

메타모포시스 metamorphosis는 형태의 의미론적 합일을 의미한다. 그 건축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생명력과 감각, 힘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와 형태를 결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메타모포시스를 유도한다.²⁴⁾ 메타모포시스는 생명에 대한 자발적인 생성과 움직임을 형태의 근원적인 힘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형태적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체적 의식은 형태의 동적인 감각을 구체화한다.²⁵⁾



<그림 8> Frank O. Gehry, Experience Music Project, Swattle, 2000

메타모포시스적 형태 변형과 이미지는 연속적 형태 변형, 움직임의 공간, 유기적인 표면과 주름, 유기적 생명력, 유전학적 발생학적 형태를 통하여 성장, 생성, 발전, 소멸하는 형태적 변형의 과정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건축언어는 3차원적 공간과 시간의 중첩, 속도와 운동감, 혼성화를 수용하여 형성된다. 메타모포시스적 건축을 구체화하는 것은 건축 형태의 움직임

과 가능성을 통하여 존재적인 경험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태와 공간의 움직임을 통한 공간지각의 특성은 시점 흐름을 통한 다변화, 영역의 중첩 및 분절, 공간의 역동적 표현, 구축요소의 반복으로 강화된다. 변형의 언어로서 solenoid, trajectory, no-formic, hyper, floating, coiling, hyperbolic, moebius. viscous, braids, chains,

fingers, folding, unfolding, hybrid, extruded, topological, flows, loop 등의 어휘들이 사용된다. 이 어휘는 건축 형태 변형과 조작의 궤적을 의미한다. 이 언어들은 형태와 공간에서 시간과 운동으로, 절대적 형식에서 상대적 상호작용으로, 정적 형식에서 역동적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구체화한다.²⁶⁾

4. 시간성 표현의 체계와 요소

3장의 연구를 통하여 <형태적 질서와 변형을 통한 시간성>과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개별적으로 시간성을 표현하는 요소를 보여준다. 그러한 체계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체계의 관계와 요소를 제시한다.

4.1. 현대 건축에서 시간성 표현의 의미

고전적 양식의 시대를 거쳐 모더니즘의 시대에 접근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개인의 삶과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 건축 공간은 기능을 통하여 분화하고 실험적 디자인은 형태와 구성을 넘어 상대적 미학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형태는 모더니즘의 구성으로부터 분화 해체되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이하고 공간은 상호관입과 변형을 통하여 점진적인 거리와 이동의 단계들을 만들어 냈다. 시간성을 통하여 형태와 공간의 디자인 전략은 단일한 요소로부터 복수의 체계 그리고 다양성의 혼합으로 전환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건축은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이며 랜드스케이프적 시공간으로 구체화된다.²⁷⁾<그림 9>



<그림 9> 시간성 표현의 의미 : 주체로서의 경험적 시간의 요구

이러한 변화는 건축 공간자체보다도 개인을 공간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인식하고 디자인 목적이 되었음을 의미

22) 윤혜경 외, 상계서, p.74
 23) 메타 meta는 상위의 의미론적 합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프 morph는 형태를 의미한다. 변태중, 상계서, p.15
 24) 최영철, 현대건축의 메타모포시스 개념의 디자인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9, pp.8~9
 25) 김원갑, 상계서, p.20

26) 변태중, 상계서, pp.21~22
 27) Manuel Gausa, 상계서, p.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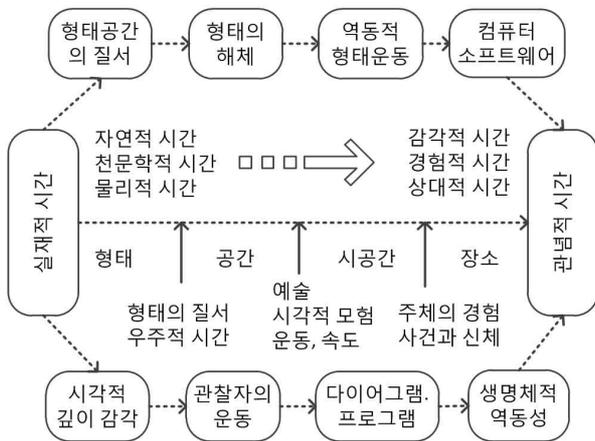
한다. 그리고 현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향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 건축은 경험적 가치로의 이동, 시각의 변화, 운동, 기억, 행위 등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얻게 된다. 시간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을 감각하는 개인이 삶의 공간과 무대의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과정은 주체와 무관한 물리적 고정적 절대적 공간에서 주체가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역동적 정보적 상호작용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의 감각은 주체의 경험으로서 공간적 시간적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의식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성의 요구는 건축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간에서 행위하고 거주하고 삶을 유지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구축하는 경험의 내용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억과 기억을 통한 인간의 삶을 중시하고 존재로서의 의식을 분명하게 구축하기 때문이다.

4.2. 현대 건축에서 시간성의 표현 체계

건축 공간에서 시간성은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사건과 형태 및 공간의 변형 과정이나 결과물을 통해서 표현된다. 경험자의 관념적 유추를 통해서도 시간성은 재구성된다.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 형태와 공간의 분화와 해체 그리고 변형은 운동을 통해서 힘과 방향성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힘과 방향성은 경험자의 이동과 시각적 변화, 관념적인 유추와 기억을 통해서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시간성은 건축적 대상 자체로부터 감각되면서 시작되고 관념적인 재구성의 시간성을 재생산한다. 형태로부터 유추되는 시간성과 공간의 경험을 통하여 관념적으로 생산되는 시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적 질서와 변형을 통한 시간성은 건축적 대상으로부터 감각되는 시간성으로,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은 관념적 시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실제적 시간으로부터 관념적 시간으로의 이동

이러한 시간은 실제적 시간으로부터 관념적 시간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관념적 시간은 주체의 경험, 사건, 신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를 구체화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시간성은 형태적 질서와 변형을 통한 시간성과 공간의 경험과 사건에 의한 시간성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시간성 표현의 체계와 요소

구분	시간성 표현의 양상	시간성 표현의 요소
형태의 질서와 변형	형태·공간의 질서	우주적 배치, 빛과 명암, 형태적 중첩과 분화, 해체, 매스의 분화, 역동적 힘의 추론, 속도, 변형의 궤적, 디지털 소프트웨어 명령어
	형태의 해체	
	역동적 형태운동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간의 경험과 사건	시각적 깊이 감각	다시점(다중시점), 시각적 운동, 투명성, 공간의 연속과 분화 그리고 혼성화, 동시성, 위상학적 표면과 배치, 공간 혹은 감각의 밀도, 기억과 흔적의 시간, 생명체적 이미지, 성장 소멸.
	관찰자의 운동	
	다이아그램·프로그램	
	생명체적 역동성	

감각적 시간성과 관념적 시간성은 운동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형태적 감각을 갖는다. 그러나 형태 중심의 감각적 시간성과 공간 중심의 경험적 시간성이라는 측면에서 <표 1>과 같이 서로 다른 표현 요소를 갖는다.

현대 건축에서 형태의 질서와 변형을 통해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주적 배치, 빛과 명암, 형태적 중첩과 분화, 해체, 매스의 분화, 역동적 힘의 추론, 속도, 변형의 궤적, 디지털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디자인 언어로 사용한다. 공간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시점(다중시점), 시각적 운동, 투명성, 공간의 연속과 분화 그리고 혼성화, 동시성, 위상학적 표면과 배치, 공간 혹은 감각의 밀도, 기억과 흔적의 시간, 생명체적 이미지, 성장 소멸의 디자인 언어를 사용한다.

4.3. 현대 건축에서 시간성의 표현 요소

시간성의 표현 요소를 현대 건축에서 사용되는 건축 언어로 요약하면, 빛과 명암 그리고 색채, 투명성과 비물질성, 위상학적 변형과 운동 궤적의 동시성, 생명체적 이미지에 잠재된 변형의 유추, 공간의 연속과 분화 그리고 혼성화, 시각적 운동과 시퀀스, 공간, 구조물 혹은 감각의 밀도, 기억에 의한 연상적 시간성 등이다.

(1) 빛과 명암 그리고 색채
 빛과 명암은 가장 분명한 방향성과 시간성을 보여주며 태양의 일주와 구조물을 통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형태와 질감을 동시에 제시한다. 형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윤곽과 형식 그리고 내적



<그림 11> Steven Holl, Bellevue Art Museum, 2001

인 구조는 빛을 통해 구체화된다. 빛은 공간의 장(場)을 만들고 경계를 통하여 오브제적 물질성과 변화를 부여한다. 천문학적 시간을 드러내는 구조물은 빛의 형상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됨으로써 공간이 갖는 크기, 깊이, 분위기의 연속적인 단계와 감각을 이미지로 상징화한다. 빛과 색채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디자인을 통해 변화하는 경험의 내용들도 생산한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역동적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가 참여하는 시간성을 생산한다.

(2) 투명성과 비물질성



<그림 12> Toyo Ito, Sendai Mediatheque, 2000

근대 이후 유리의 투명성을 통해 내외부 공간은 상호 침투하고 확장하며 벽체는 재구성되고 중첩되어 시각적으로 동시성을 얻는다. 유리의 투명성을 통해 얻어지는 시간성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구축된다. 관념적인 이동의 방향성과 공간들을 하나로 묶어 투영시킴으로써 시간성이 생겨난다.

서로 다른 공간과 윤곽이 겹치고 이어져 다의적인 질서를 만들고 내외부, 상하, 전후의 경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경험의 질서를 생성한다. 이 경험의 구조가 새로운 시간성을 경험하게 한다.²⁸⁾ 투명성이 갖는 다양한 공간의 연속적 경험은 시각적 일체감을 통하여 시간성을 생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료의 물성이 해체되고 투영되고 반사됨으로써 복수의 시점과 깊이가 생성된다.

(3) 위상학적 변형과 운동 궤적의 동시성



<그림 13> Francois Roche, Green Gorgon, 2004

특정한 움직임의 방향성과 크기, 혹은 움직임의 궤적을 그려냄으로써 형태 혹은 공간은 운동의 긴장과 역동성을 갖는다. 그러한 역동성은 측정된 순간으로 혹은 변화의 과정으로 관념적 유추를 통해

실체가 된다.

여기에서 운동은 필연적으로 전후 변화의 과정과 시간성을 얻는다. 이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간으로서 가치를 얻는다. 이러한 형태적 공간적 변형과 변형의 궤적은 동시성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 안에 복수의 윤곽과 한계를 누적시킴으로써 물리적 시간을 하나의 시각(視覺)으로 구조화한다. 동시적 시각(視覺)안에

운동, 역동적 힘, 속도, 방향을 통해 시간성이 생성된다.

(4) 생명체적 이미지에 잠재된 변형의 유추

생명체적 이미지를 통하여 건축이 접근하고자 하는 가치는 개개인의 감각과 지각, 생명체적 의식과 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생명체적 유기적 형태의 지각은 사건의 경험과 이벤트적 기억을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에너지, 운동, 변화, 속도, 의식 등을 표면화 한다.



<그림 14> Thomas Herzog, Expo-Dach, Hannover, 2002

유기적인 형태와 변형의 메타포는 연속적인 형태, 율동하는 표면, 변형되는 선형구조체, 유전학적 혹은 발생학적 형태, 동물 혹은 식물을 통한 형태 생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물은 정지되고 죽어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교감하고 자극하고 감각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작품 혹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건축물은 정지되고 죽어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교감하고 자극하고 감각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작품 혹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5) 공간의 연속과 분화 그리고 혼성화



<그림 15> Hose Antonio Ramos + Ignacio Vicens, Old Peoples' Home, San Juan, 1997

연속적 공간의 연계는 경계, 닫혀있음과 열려있음으로 인하여 이동과 함께 다양한 행위와 사건들, 기능들의 연속으로 재구성된다. 영역의 구분 혹은 공간을 채우는 형태적 요소는 그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생산한다.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 기둥,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프레임은 통합된 시각적 요소들을 함께 생산한다. 그러므로 깊이의 감각을 분화시키고 복수의 프레임과 초점, 예시적 공간을 제시한다. 연속된 공간은 다양한 사건들의 연쇄로 생산되는 시간을 생성한다.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더라도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관념적으로 예상하고 추적하는 사건의 시간들이 생성된다.

(6) 시각적 운동과 시퀀스

힐데브란트는 관찰자의 두 눈이 만들어내는 2차원 평면의 상이 운동을 통하여 3차원적 조형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동적 시각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구체화되는 형태와 공간의 지각 능력이다. 일차적인 세계의 파악으로서 '감각하기'는 대상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고 존재하는 세계의 윤곽과 관계를 한정한다. 보기는 장면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각적 틀과 초점의 다양화, 시각의 변화, 시선축의 이

28) 김호연, 상계서, pp.13~14



<그림 16> FOA,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2002

동으로 분해된다. 즉 시각을 통한 세계의 인식을 운동을 통하여 가능해지고 연속적인 시퀀스로 동질화된다. 아돌프 로스는 내적인 동적 시선이, 르 꼬르뷔제는 산책로와 같이 외부로 향하는 파노라마적 시퀀스가 결합된다.

(7) 공간, 구조물 혹은 감각의 밀도



<그림 17> Rem Koolhaas, Seattle Central Library, 2004

공간을 한정하고 내부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행위와 사건을 유도하고 작용시키며 연상시킨다. 일정한 영역 혹은 공간에서 분명하게 예측되는 행위와 사건들에 의하여 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된다. 그러한 지각 내용의 밀도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기대되는 행위의 밀도가 된다. 감각의 밀도는 공간의 밀도가 된다.

공간이 갖는 윤곽과 구조물, 마감재료, 가구, 설비, 조명, 집기들은 공간 내에서 무수한 감각적 관계와 기대 행위 그리고 잠재적 사건을 만든다. 이러한 잠재적 내용들도 기억과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감각의 이미지는 공간의 이미지와 내용이 된다. 그 공간이 갖는 이미지는 시간의 밀도와 심리적 속도를 생산한다. 즉 공간 본래의 시간성을 구축한다.

(8) 기억에 의한 연상적 시간성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삶 속에서 흐르는 시간을 관념화한다. 시간은 경험과 주관적인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정과 심리로 이루어진다. 경험에 의한 체험이 시간의 가치를 부여받는 것은 연상, 즉 기억에 의한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과 시공간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억한다. 체험은 물리적 시간이 가지는 순차적 구성이 아니라 개인의 감각을 통해 재구성되고 기억된다. 즉, 시간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흐름이 된다. 그러한 시간은 형태가 주는 과거의 시간적 연상, 프로그램을 통한 과거의 회상, 재료가 가진 시간적 경과의 흔적을 통하여 인지된다.²⁹⁾ 이러한 시간성은 관념적 추적이다. 실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의 유비적 추론에 의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5. 결론

시간성은 현대 건축의 중요한 표현의 대상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현대 건축은 시간을 통합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직화된 실체의 연속적 형태를 경험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감각한다. 사건의 순차적 흐름은 시간의 간격과 폭을 만든다. 시간과 사건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사건은 사고를 통해 언어 형식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경험된 사건을 통해 시간의 감각을 한정하고 시간을 조직화한다. 그 과정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쓰고 기억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마다 상대적이다. 시간은 유동적이며 주관적이며 비결정적 경험적 구조로 생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디자인 과정들은 비선형적인 궤적과 그들 자신의 역동적이고 상대적 결과물을 완성시키며 시간성을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현대 건축의 시간성 표현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러한 상대적 시간이 개인의 의식과 존재적 근거로서 요구되고 한 개인의 경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하여 건축의 시간성 표현을 형태적 질서와 변형의 측면과 공간의 경험과 사건이라는 측면으로 유추되는 시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바라본 시간성의 구분은 건축이 구체화하고 있는 형태와 공간이 시간을 통해 인간적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개인의 경험을 특정한 장소 속에 사건으로 위치시키고 분명한 기억과 삶의 내용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므로 현대 건축에서의 시간성이 갖는 의미는 건축 공간을 공간의 주인이자 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고 의미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성을 얻는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시공간 내에서 분명한 삶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풍요로운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성의 표현 요소를 구체화하는 우주적 배치, 빛과 명암, 형태적 중첩과 분화, 해체, 매스의 분화, 역동적 힘의 추론 등의 언어들은 바로 인간이 감각하고 경험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형태와 공간을 규정한다. 동시에 그 경험이 시간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현대 건축에서 두드러지는 시간성의 표현 요소로서 빛과 명암 그리고 색채, 투명성과 비물질성, 위상학적 변형과 운동의 궤적, 생명체적 이미지에 잠재된 변형, 공간의 연속·분화·혼성화, 시각적 운동과 시퀀스, 공간 혹은 감각의 밀도, 기억에 의한 연상적 시간은 시각적인 힘을 통하여 표현되는 건축에 경험의 깊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내용을 풍요롭게 하고 경험의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경험은 결코 단순해

29) 박태우, 근대건축물의 공간 재활용에서 시간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pp.49~59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단계와 시간을 통해 얻어진다.

최종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 건축에서의 시간성의 표현이 관념적 시간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향은 건축이 감각되어지는 아름다움과 디자인 요소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내용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예술로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성은 궁극적으로 건축이 시각적 예술에서 관념적 예술로 구체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시간성의 해석과 경험은 현대 건축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경향들을 하나로 묶고 건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다이어그램적 해석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건축물과 건축 경험 자체에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인간과 삶의 배경으로서 공간에 의미있는 내용을 충족시키고 서로 살아있는 실체로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건축과 인간 사이에 매우 가치 있는 관계를 기억을 통해 유지시키는 과정이다. 시간성은 개인의 삶과 건축물의 의미에 순간적 이미지와 의미를 넘어서는 과정과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구체화하는 매개체가 된다.

참고문헌

1. 김원갑, 건축과 시간속의 운동, 시공문화사, 2009
2. 박향섭 외, 건축공간론, 대한건축학회, 2010
3. 장정제, 자유로운 건축, spacetime, 시공문화사, 2008
4. 장정제, 아름다운 건축, spacetime, 시공문화사, 2008
5. Ben Farmer, 현대 건축의 사고, 장정제 譯, 시공문화사, 2008
6. Manuel Gausa,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7.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press, 1998
8. 김성우, 동서양 건축에서의 공간과 시간, 건축역사연구 제13권 3호, 2004
9. 김호연, 큐비즘의 투명성과 시간성 표현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0. 문정필 외, 현대건축 조형에 나타난 동시성의 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논문집 10월 3호, 2008
11. 박태우, 근대건축물의 공간 재활용에서 시간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12. 변대중, 현대 건축의 메타모포시스적 해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0 No.1, 2011
13. 유병은, 예술, 건축, 음악 그리고 공간과 시간, 建築 Vol.39 No.9, 1995
14. 윤혜경 외, 현대건축의 공간형태 생성으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8 No.4, 2012
15.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Vol.39 No.9, 1995
16. 장정제, 건축 디자인 도구의 발전과 건축언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8 No.6, 2012
17. 최영철, 현대건축의 메타모포시스 개념의 디자인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9

[논문접수 : 2012. 11. 28]

[1차 심사 : 2012. 12. 22]

[게재확정 : 2013. 01. 09]